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평화론 : 세 수준의 이론적 분석

오영달/하영애

한양대학교/경희대학교

< 목 차 >

I. 서론	IV. 칸트의 평화연맹과 조영식의 지역·지구공동사회와 Pax UN
II. 칸트·조영식의 평화론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영	V. 결론
III.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와 조영식의 ‘보편적 민주주의’ 정치체제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 칸트(Kant), 영구평화론(Perpetual Peace), 조영식(Choue Young Seek),
오토피아 (Oughtopia), 보편적 민주주의(Universal Democracy)

국문요약

이 논문은 조영식의 평화사상의 저변에 있는 이론적 요소들을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병렬적으로 비교, 고찰하고 있다.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라는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 평화론을 분석한다. 그 결과 개인 수준에서 칸트는 개인들 간의 자유와 평등, 국가 수준에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주의 헌법과 대의체제를 가지는 정치체제,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는 이러한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지는 국가들 간의 연맹과 이방인에 대한 현대개념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영식은 칸트를 비롯한 많은 계몽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까닭으로 그의 평화사상 전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칸트 같은 사상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고 중요한 이론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인 수준에서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도 여기에 공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유 위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평등 위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넘어 평화적인 제3민주혁명에 의한 보편적 민주주의를 통해 인류 만민의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게 볼 때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는 어떤 면에서 조영식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수준에서 조영식은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지역협동사회, 지역공동사회 그리고 지구협력사회와 지구공동사회가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및 지구의 연합적 국가체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지구공동사회를 위해 유엔을 통한 세계평화를 강조한 것은 그의 평화에 대한 접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로 조영식은 그의 청년시절의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그리고 저술을 통하여 공고히 다졌던 평화이념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실천에 옮기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실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조영식이 제시한 이론적 내용들과 실천 노력들은 향후 인류 사회를 위해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I. 서론

인류의 동서고금을 통하여 평화라는 주제에 대하여 사색하며 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들은 매우 많다. 그것은 흔히 인류의 삶이 많은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만큼 평화에 대한 희구심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20세기 그리고 21세기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잠시 근현대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제국주의적 침탈과 두 번의 세계 대전, 그리고 대소의 국지전 속에서 엄청난 수의 인류의 인명 살상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문화유산의 파괴가 있었다. 조영식은 최근의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 헌신한 많은 인물들 중의 한 인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평화에 대한 깊은 연구와 사색에 기초하여 독특한 오토피아¹⁾ 평화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평생 인류사회의 자유, 평등, 공영 그리고 전쟁 등 여러 문제들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출판된 수많은 그의 저술과 연설문집 그리고 밝은사회운동 등 활발히 진행되어 온 많은 국내외적인 사회운동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국내외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인간조영식 박사 101집 출간위원회 1994). 그는 이미 그의 20대 후반인 1948년 『민주주의 자유론 - 자유정체의 탐구』, 1951년 『문화세계의 창조』, 1975년 『인류사회의 재건』, 그리고 1979년 『오토피아 : 전승화이론을 기초로 하여』 등을 주요 단행본으로 출판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주도적으로 조직해왔던 수많은 국내외 회의들에서 행한 연설의 원고들이 2001년과 2003년에 각각 3권(영문)과 5권의 전집(국문)으로 발간되었다(조영

1) 오토피아(Oughtopia)라는 용어는 조영식 자신이 조어한 것으로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사회(ought-to-be society)'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정신적으로 아름답고(spiritually beautiful),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materially affluent)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람있는(humanly rewarding) 사회'를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는 오토피아가 하늘나라나 개념적 낙원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실현가능한 사회로서 역사적으로 이와 유사한 개념들인 플라톤의 이상세계, 칸트의 목적의 왕국,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다르다고 말한다(Young Seek Choue 2001, 235). 최근 오토피아에 대한 학술연구로는 그 이론과 그 실천에 중점을 둔 하영애의 연구가 있다(2010, 27-51).

식 2001 ; 조영식 2003). 그는 인류공동체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직접 수많은 사회 운동을 조직, 전개해왔는데 먼저 농촌 등의 빈곤퇴치를 위한 목적에서 1960년대의 ‘잘살기 운동,’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밝은사회 운동’, 1990년대의 남북이산가족재회운동, 1990년 후반 이후의 네오르네상스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는 세계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의 모임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의 조직을 주도하고 운영하면서 세계평화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 회의에서 기울인 노력의 결과의 하나는 1981년 제36차유엔 총회를 통해 ‘세계평화의 날’ 과 ‘세계평화의 해’를 지정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조영식 자신이 훌륭한 교육자요 또한 교육사업가로서 특별히 국제평화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가 설립한 경희대학교 산하의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경기도 광릉 독립 캠퍼스의 평화복지대학원은 지속적인 평화연구 수행과 평화지향적인 국제적 인재들을 양성해오고 있다.

따라서 조영식이 평화를 위해 걸어온 지칠 줄 모르는 족적은 세계평화의 전반적 문제를 조명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고찰과 평가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그가 조어한 ‘오토피아,’ 즉,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나아가자고 호소했을 때 그러한 견해의 저변에는 어떤 이론적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고찰, 분석하는 것은 평화의 도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물의 개인적 평가는 그 자체만으로 접근할 때 자칫 주관적 찬양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진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영식의 오토피아 평화론을 고찰함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평화사상가로 인정되는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과 견주어 접근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일찍이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5년에 『영구평화론(on perpetual peace)』이라는 저술을 발표하였고 오늘날까지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칸트의 인류사회를 위한 영구평화에 대한 구상이 오래도록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그의 구상이 견고한 이론적 요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에서 보여 지는 주요 이론적 구성요소들에 유의하면서 약 200년 후에 활동하는 조영식의 오토피아 평화론 속에서 보여 지는 주요 이론적 구성요소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조영식은 유년 시절 사서삼경 등 한학을 수학하면서 동양 고전을 접했고 청년기에는 세계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에 대한 독서를 통해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폭넓게 섭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밝은사회운동 30년사 편찬위원회 2007, 77). 그가 27세에 출판한 최초 저서인 『민주주의 자유론』, 30세에 출판한 『문화세계의 창조』는 그의 견해들을 개진함에 있어서 수많은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인용함을 볼 수 있다. 이후 1979년의 『오토피아』 등 그의 저서나 연설문들 중에서도 다양한 동서양 사상가들에 대해 인용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칸트 등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 그가 인류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평화사상가인 칸트

2) 이를 위해 그의 20세기 중반 저서들인 『민주주의 자유론 - 자유정체의 탐구』, 『문화세계의 창조』, 『오토피아 : 전승화이론을 기초로 하여』 등을 참조. 비교적 최근인 1992년 10월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행한 한 특강에서는 칸트의 영구평화초안에 나오는 세계 공화국 건설과 전쟁 없는 영원한 하나의 세계에 대해 언급 하고 있는 것도 그 예이다(조영식 2003, 508, 512).

의 사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칸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상가들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평화구상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흔히 ‘오토피아평화모델’로 불리운다(조영식 1991). 조영식의 평화철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가 기존의 사상들을 두루 섭렵하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영식은 전쟁의 원인이 인간성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생겨나는 제도적 모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접근을 중요시하였다(Bernaldez 2002, 209-2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라는 이상이 인류의 오랜 역사에 있어서 고도의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평화 지향적인 철학과 사상들 사이에는 흔히 중요한 공통점이 보여 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기본적 이해 하에서 칸트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 평화론 사이에 보여 지는 중요한 이론적 공통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조영식이 20세기와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상황 속에서 이를 어떻게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조영식과 칸트의 평화이론의 비교분석을 위해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온 세 가지 분석수준들, 즉 개인, 국가, 국제사회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고자 한다.³⁾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본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칸트와 조영식의 평화론에 있어서 개인들 간의 관계에 관련하여 칸트가 논의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론, 그리고 그에 대응한 조영식의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칸트의 공화주의적 정체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평화론 그리고 조영식의 보편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칸트가 주장했던 공화주의 국가들 사이의 평화연합, 그리고 조영식의 지역공동사회, 지구공동사회 그리고 Pax UN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영식의 평화이론이 오늘날 및 향후 인류세계를 위해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II. 칸트·조영식의 평화론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영

1. 칸트 영구평화론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

평화는 기본적으로 개별 인간들로 구성된 정치공동체의 문제이다.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형태는 다양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부여하는 중요성도 학자들마다

3)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일찍이 이러한 세 수준의 분석적 접근을 시도한 학자는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유명한 케네드 월츠(Kenneth Waltz)가 있다. 그는 인간, 국가 그리고 국제수준이라는 세 수준 또는 세 이미지라는 개념을 통해 전쟁의 원인 문제를 논의하였다(Waltz, 1959). 최근에는 급속히 진전되어가는 세계화를 반영하여 국제사회라는 용어 대신에 찰스 케글리(Charles W. Kegley, Jr.)처럼 ‘범세계적 수준(global level)’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Kegley, Jr. 2009).

다르다. 예를 들면 정치적 현실주의자들(political realists)은 개인보다 국가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칸트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이전의 사상가들과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은 정치공동체에 있어서 먼저 개별적 인간이라는 행위자를 가장 중요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정치공동체에 있어서 개인의 위상은 그렇게 중시되지 않고 주로 군주나 귀족 등 통치계층 위주로 정치이론도 전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칸트의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18세기 후반 칸트가 활동하고 있던 계몽사상기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칸트가 생활하고 있었던 프리시아는 당시 계몽전제군주였던 프리드리히 2세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칸트조차도 그의 자유주의 이론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군주제 하의 프리시아 현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의 자유주의 이론에 모순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하였었다(Kant 1983, 113-4). 그러나 이미 시대는 헤겔이 말하는 자유의 진전으로서의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없었고 칸트가 영구평화론을 집필했던 시기는 바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를 기치로 내걸고 전개되었던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난 직후로서 칸트는 이를 동정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었다(Williams 1983, 247). 또한 칸트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목도하면서 그러한 전쟁을 방지하고 인간사회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궁구하게 되었다. 바로 그 당시에 혁명 프랑스와 프리시아간에 바젤조약(Basel Treaty)⁴⁾이 체결되었는데 칸트는 이러한 강화조약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평화를 가져오는 조약이 아니라 일시적인 휴전조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었다(유석성 1996, 126). 따라서 칸트는 그 나름대로 영구평화를 위한 가상의 조약 초안⁵⁾을 만들어 그의 인류평화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영구평화론이다.

그의 영구평화론에서 이 논문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칸트가 국가 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먼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칸트의 평화에 대한 사색은 바로 이성(理性)의 주체로서 개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正義, justice)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는 계몽사상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성의 주체로서 개인들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초점이 두어진다. 계몽사상 시기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군주나 신에게 부여되었던 최고의 권위는 부정되고 대신 개별 인간의 이성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성의 주권(sov^{er}eignty of the reason)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였다(F. C. Beiser 1996).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제사회의 궁극적인 평화는 먼저 개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존중이라는 정의실현 원칙과 맞물려 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개별 인간들의 자유라는 개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도덕과 사회의 개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4) 이 강화조약은 칸트의 조국인 프리시아와 혁명전쟁을 수행하고 있던 프랑스 사이에 1795년 3월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프리시아는 당시에 프랑스 혁명에 간섭하고 있던 대 프랑스 연합전선에서 이탈하여 프랑스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였다(김용구 1989, 4-5).

5) 따라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형식상 당시 조약문들의 구성요소인 예비조항, 확정조항, 추가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칸트에 따르면 합리적 개념에서 연원하는 철학적 지식은 생각의 형태, 즉 논리 또는 그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와 그 관련 법칙으로 집약된다(Taliq and Begum 2008, 3). 이러한 자유에 관한 도덕 형이상학은 초감각적인 초월적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결국 법의 지배에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용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무엇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 즉 도덕형이상학이 기초해야 할 의무에 관한 합리적 개념은 단순히 경험에 기초하기 보다는 이성 그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다고 하였다(Kant 1997, 251 cited in Taliq and Begum 2008,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실제적 사용에 있어서 자유라는 개념은 실제적 원칙, 즉 어떤 경험적 조건으로부터 독립하여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순수이성의 인과법칙에 의하여 현실로 되고 또 바로 도덕과 법 개념의 근원이 되는 순수의지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Kant 1996, 376 cited in Taliq and Begum 2008, 4). 여기서 순수이성은 경험적 자아가 아니라 초월적 주체 또는 자아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칸트가 일반적으로 세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현상적(phenomenal) 측면과 본원적(noumenal) 측면으로 나누고 이로부터 순수의 세계와 실제의 세계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칸트의 윤리학은 단순히 자유라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기 보다는 윤리학이 곧 자유의 근거가 되는 셈이기도 하다(Taliq and Begum 2008, 10). 칸트의 윤리적 차원에 있어서 자아에 대한 견해는 한편으로 자유를 목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평등의 측면을 본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명예를 중시했던 전근대 또는 귀족주의 시대로부터 보다 민주적인 가치의 근대로의 최종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즉, 이제 기존의 위계적인 사회질서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모두 동등하다는 자유주의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했고 칸트는 이러한 전환의 옹호자와 대변자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하나의 기본적 권리(right)로서 심지어 우리가 신처럼 높은 존재가 있다고 믿을 때조차도 그 관계에 있어서 적용된다고 지적하였다(Kant 1991, 99). 즉, 칸트 영구평화론의 출발점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어떤 신이나 통치자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이성이 요구하는 선형적 규범성에 기초한 입법원칙임을 보여준다(Kant 1991, 73).

칸트의 이러한 접근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국가든, 국가들로 형성된 국제사회든 모두 개별적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흔히 국가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행동들도 결국 인간 상호간의 작용으로 환원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최상용 1997, 235). 나아가 모든 인간은 도덕적 관심의 궁극적 행위 단위체로서 단지 가족이나 국가 내의 구성원으로서만 위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의 위상도 갖는다(Pogge 1992, 48-49)는 점을 고려할 때 인류사회의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 인간의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앤드류 허렐도 지적하듯이 칸트의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그가 평화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인간중심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Hurrell 1990, 202). 이러한 사실은 조영식이 그의 평화이론 전개에 있어서 인간중심주의적 특징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칸트의 이론적 입장과 어떤 공감대를 가짐을 보여준다.

2. 조영식의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

조영식은 동서양의 많은 사상가들 중에서도 계몽사상기의 사상가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의 초기 두 저작인 『민주주의 자유론』과 『문화세계의 창조』에서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자세히 다룬 데서도 잘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많은 자유주의 계몽사상가들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이 중요한 것은 조영식이 청소년과 청년기 초기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한반도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득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횡행하고 있던 제국주의와 결합한 국가우월주의 사상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는데 그만큼 계몽사상기의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칸트 등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유사상을 옹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독립혁명 당시의 유명한 민주주의 사상가 패트릭 헨리의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언을 인용하기도 한다(조영식 1948, 42-45). 그는 또한 자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칸트의 견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자유는 내 자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활동되도록 결정지어지지 않는, 즉 강행되지 않는 자율(自律)로서 무이유(無理由), 무원인(無原因), 무법칙(無法則)인 방종된 자유는 인간의 자유로서 하등 무의미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코 도덕적 동물로서의 자유가 아니다(조영식 1948, 52).” 특히 칸트가 이성과 자유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논한 부분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전연적(全然的)인 선(善)의 의지(意志)라는 것은 그의 격률(格率)이 언제나 보편적 법칙으로 인정된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보유할 수 있는 의지로서의 명제(命題)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모든 이성자(理性者)의 의지로서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자의 의지는 다만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자기 자신의 의지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실천적 견지로부터 보아 모든 이성자에게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조영식 1948, 124).”

그리하여 조영식은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자신의 의미를 설명한다: “실로 자유는 인간을 합리적 타당의 길로 인도해주는 등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길을 가르쳐 준다. 즉, 권선징악의 사상, 선을 찬양하고 악을 증오하는 근본사상은 오로지 자유에서부터 태생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영식 1948, 130).

그는 특히 자유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본능적(本能的) 또는 방종적(放縱的) 자유, 인격적(人格的) 자유, 그리고 발전적(發展的) 자유라고 하였다. 그가 민주주의 자유론에서 본능적 자유, 그리고 문화세계의 창조에서는 방종적 자유라고 부른 이 자유 개념은 전부(全部)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동적, 자의적인 자유를 의미한다(조영식 1948, 61; 조영식 1951, 111). 이것은 17, 18 세기에 자본주의가 대두하면서 봉건국가체제가 근대적인 민권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유사상으로 이해하였다(조영식 1948, 62; 조영식 1951, 111-113). 두 번째 인격적 자유는 개별적 인간의 자유 행위가 단지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복리를 문란, 저해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조영식 1948, 71; 조영식 1951). 그러나 그는 당

시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결국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그 수용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 근거로서 일본 제정(帝政) 하의 법률, 파시스트 국가들의 법률 준수는 실제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라기보다는 구속된 의미의 소극적 자유라는 점을 들었다(조영식 1951, 115). 따라서 조영식은 그 대안으로 ‘발전적 자유론’을 제시한다. 그가 ‘문화적 복리주의의 자유관’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 자유론은 이기적인 자아적(自我的) 자유와 이타적인 타아적(他我的) 자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혼연일체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조영식 1951, 112-113). 여기에서 ‘발전적’이라는 말은 이러한 자유가 고정적이지 않아서 항상 인민의 복리에서 벗어날 때는 개편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덧붙일 것은 자유의 문제를 국가와 국제사회의 경우에 적용할 때는 국가는 국제사회의 행동에 원칙적으로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류 문화세계의 길에 기여하는가 여부에 따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는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영식 1951, 119).

자연히 조영식은 자유에 대한 논의 후에 평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조영식은 평등의 의미도 무차별적 평등, 차등적 평등, 그리고 그가 문화적 복리주의의 평등관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평등관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무차별적 평등관은 무조건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갖 것에서 평등이어야 민주주의에 적합하고 또 그것만이 민권사상에 부합된다는 생각을 가진 입장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의 분(分)과 능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방종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조영식 1951, 121). 두 번째 차등적 평등관은 만인의 분(分)과 능력을 고려한 차별이 있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 무차별적 평등관에서 진보한 타당한 견해로 보았다(조영식 1951, 122).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들 사이에 확실한 한계를 긋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평등관은 실제에 있어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조영식 1951, 123). 그러면 평등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조영식은 평등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있어서만 즉,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인 부문에 한해서만 존재하고 성립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리하여 평등의 본래 의도는 전체자의 억압에 반대하고 그 유린을 막기 위함에 있었다고 하였다(조영식 1951, 123-4).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은 이전 자유주의적 계몽사상가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영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영론(共榮論)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영론적 접근은 기존의 칸트를 비롯한 자유주의 사상가들과 차별되는 것으로 그의 첫 번째 저서인 『민주주의 자유론』 끝부분(152-158)에서 언급한 이후 『문화세계의 창조』(124-129), 그리고 최근의 ‘보편적 민주주의론’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의 지나친 강조에 의해 나타나는 빈익빈부익부의 병폐 치유는 바로 이 두 개념이 함께 나아가자는 공영사상에 기초할 때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다(조영식 1948, 157). 이러한 인간의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사상은 1979년에 출판되는 『오토피아』에서 공식적인 ‘인간중심주의(human-centrism)’로 제창된다. 즉, 조영식은 이제 주의(주리)생성론(主意(主理)生成論)과 관련하여 인간의 육체는 물론 인간의 자유의지인 정신을 더욱 중시하여 중인(重人), 즉 인간중중 사상에 입각한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조영식 1979, 73).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히 칸트를 인용하여 ‘누구의 생명도 인격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목적으로 대하되 결코 수단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조영식 1979, 74). 인생은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삶이 시작되고 생명의 종식과 함께 막을 내린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행복하고 값있으며 보람 있게 살도록 하여주는 생명을 우리는 최대한 존중하고 고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조영식 1979, 73).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에 서있는 칸트와 조영식은 모두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도 명칭과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론에 입각하여 접근한다.

III.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와 조영식의 '보편적 민주주의' 정치체제

1.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 국가론

칸트를 포함하여 계몽사상기의 철학자들은 국가의 성격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흔히 보이는 특색은 국가가 성립되기 전의 자연상태에 대한 상정, 이러한 자연상태(state of nature)를 벗어나 수립되는 국가 또는 정부의 성격 등에 관한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들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정부 또는 국가를 수립하여 정치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연상태는 정의가 부재하고 폭력이 횡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사람들은 이를 떠나 오직 합법적인 경우에만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생활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사람들은 자연상태를 떠나 시민사회(civil society)로 들어가게 되는데 칸트는 이러한 시민사회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는 전제정(despotism)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보다 이상적으로는 공화정(republican polity)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칸트는 그의 영구평화론 제2부 제1확정조항에서 평화상태를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공화주의적 시민헌법(civil constitution)을 가진 시민국가(civil state)의 존재를 제시한다(Kant 1991, 98). 칸트에 따르면 이 공화주의적 시민헌법은 하나의 강행법으로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범인데 사람들은 그 동포들과의 일반적 연합 내에서 그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Kant 1991, 73). 그리하여 이러한 시민국가는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원초적 사회계약에 기초하는 합법적인 국가로서 다음과 같은 선형적 원칙에 기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한 인간(human being)으로서 사회 각 구성원의 자유(freedom) 향유 원칙, 둘째, 단일한 법에 의존하는 신민(subject)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평등(equality), 그리고 셋째, 시민(citizen)으로서 국가의 각 구성원의 독립(independence) (Kant 1991, 74).

이러한 원칙들은 전제국가(despotic state, 專制國家)에 대한 반대형태로서 공화적(共和的) 정부체제하에서 그 구성 시민들은 서로 자유로우면서도 공동의 법 앞에서는 서로 평등한 보편적 원리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칸트는 이 공화주의적 헌법만이 한 국민의 모든 올바른 입법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원초적 계약(original contract)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원초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 이전에 홉스나 루소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취했

던 가상적 자연상태에 있어서 개인들 사이에 맺어지는 국가수립의 최초 계약을 의미한다. 칸트는 바로 이 공화주의적 헌법이 정의(justice)나 권리(right)에 대한 순수개념에서 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원에 있어서 순수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원하는 바 영구평화를 달성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Kant 1991, 100). 나아가 칸트는 공화주의적 헌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가들 사이에 왜 영구평화가 가능한지를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공화주의적 헌법 하에서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시민의 동의가 필수적이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은 당연히 전쟁과 같이 위협스런 일의 시작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시민 자신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쟁비용도 그들의 재산으로부터 엄출되어야 하며 전쟁 후에는 전쟁의 참화를 복구하기 위하여 동원되어야 할 것이 예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쟁 종결 후에도 전쟁을 치루면서 썼던 국채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저야 하고 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배태되는 새로운 전쟁의 위협 때문에 결코 그 동안 지불한 고통의 보람은 없고 이러한 전쟁의 비참함을 시민 자신들이 모두 짊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Kant 1983, 113).

칸트는 피치자가 시민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국가, 즉 비공화적 헌법 하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비공화적 국가의 정치체제 하에서 국가의 통치자는 다른 시민들에 대해 같은 동료시민으로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소유자처럼 행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⁶⁾ 뿐만 아니라 전쟁은 통치자들 자신의 식탁, 사냥, 오락장, 그리고 궁중 연회 등에 하등의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중대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단순히 흥밋거리로 전쟁을 일으키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나머지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외교관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정당화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Kant 1991, 100).

이처럼 칸트는 인류사회에 있어서 영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화주의적인 정치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에서 칸트가 말하는 공화주의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칸트는 당시의 세계에서 공화주의적 헌법과 민주주의적 헌법 사이에 의미상 혼동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국가와 정부의 형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면서 국가의 형태는 누구에게 최고의 권위(supreme authority)가 소재하느냐에 관련되는 주권의 형태(forma imperii ; form of sovereignty)로 구분되고 정부의 형태는 총체적 권력(plenary power)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방식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주권의 형태에 따라 군주정,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정부의 형태에 따라 공화적 정부와 전제적 정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Kant 1991, 100-101). 그리하여 칸트에 의하면 공화주의 정치체제(republicanism)는 집행부(Executive)의 권력이 입법부(Legislature)의 권력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에 전제주의 정치체제(despotism)는 법이 단일한 권력에 의하여 제정됨과 동시에 또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칸트는 어느 누구도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의지에 대한 입법자이자 집행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보다는 대의체제(representative system)가 중요함을 강조한다(Kant 1991, 101).

6) 이러한 경향은 근대 서양정치사에서 두드러진 경향이였다. 그리하여 전쟁은 소위 왕가간에 빈번하였던 것이다 (허재일·소치형 1999, 64)

그리고 정치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대의체제가 불가피함에 비추어 민주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곧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칸트는 주권의 형태에 있어서 민주정은 그 용어의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필연적으로 전제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치체제 하에서는 외면적으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행부를 세워 한 개인에 대하여 그의 동의 없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체 국민에 의하여 결정이 내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전체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모순된다는 것이다(Kant 1991, 101). 칸트는 민주정 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대표되기 보다는 모든 사람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군주정이나 귀족정은 전제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정 보다는 낫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들 정치체제가 최소한 대의체제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점을 들었다. 예를 들면 당시 프러시아의 군주 프리드리히 2세가 국민의 공복으로 자처한 것을 대의체제의 긍정적 사례로 보았다(Kant 1991, 101). 즉, 통치자의 수가 적고 그리하여 대표성이 높을수록 그 현정은 점진적 개혁을 통해 공화주의적 잠재성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정보다 군주정이나 귀족정이 더 나은 것으로 보았다. 민주정에서는 프랑스 혁명에서 보듯이 오직 폭력적인 혁명에 의해서만 이러한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칸트는 사람들이 주권의 형태보다는 정부의 형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았고 어떤 정부형태가 정의나 권리의 개념에 부합하려면 그 정부형태는 반드시 대의체제에 기초해야만 하며 바로 이 대의체제만이 공화주의 국가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주권 형태이든 전제주의와 폭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Kant 1991, 102). 칸트의 주권과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그와 동시대인이었지만 한참 연상이었던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지니고 있던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최상용 1997, 229). 칸트의 정치철학은 다분히 루소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루소는 주권의 형태로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논의하면서 민주정으로서의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형태에 있어서는 선출된 사람들이 연합하여 정치를 해나가는 귀족정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았었다(Miller 1984, 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칸트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옹호하면서도 민주정을 폄하함으로써 다소의 이론적 혼란을 초래한 면이 있다. 따라서 레일리(David Reilly)나 프란세스체트(A. Franceschet) 같은 학자들은 칸트의 저술 중 공화주의를 자유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여기에는 오히려 모호하거나 비자유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이다(Reilly 1997, 21-2; Franceschet 1998,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이상적인 국가체제로서 본 공화정은 아치부기(D. Archibugi)의 해석처럼 오늘날 있어서 대의민주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신 칸트의 민주정은 오늘날의 직접민주제로 봄으로써 이러한 의미상 혼란은 정리될 수 있다(Daniel Archibugi 1995, 430). 왜냐하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주요 구성적 특징도 자유와 평등, 대의정부, 그리고 권력분립 등이기 때문이다(Russett 1993, 4).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또는 '자유주의적 평화론(liberal peace)'도 대체로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에 기초한 평화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최상용 1997, 269; Doyle

1983). 칸트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공화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조영식도 평화라는 주제를 모색함에 있어서 언제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의 연계선상에서 접근하고 있다.

2. 조영식의 ‘보편적 민주주의’ 국가체제론

조영식의 국가론은 그가 한국전쟁 중에 출판한 저술인 『문화세계의 창조』에서 뚜렷이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국가론과 관련하여 ‘통치자(統治者)를 위한 국가관’과 ‘피치자(被治者)를 위한 국가관’으로 대별하였다. 통치자를 위한 국가관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오직 군왕 즉, 지배자들에게 복종이 요구될 뿐 권리는 요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았다. 그 반면, 피치자를 위한 국가관은 국가가 통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17, 18 세기의 민권사상의 대두와 함께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조영식 1951, 102-104). 즉, 국가는 묵시적 민약(民約)에 기초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추구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국민주권사상을 언급하며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사회에 있어서처럼 의무 없는 권리만 행사하는 독재자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권리 없는 의무만 행사하는 국민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조영식 1951, 104). 물론 조영식은 이러한 두 가지 국가관 중 피치자를 위한 국가관을 옹호한다. 그가 “국가는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이요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기관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극단적 자유주의(libertarian) 국가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관은 위에서 언급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영이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그는 통정적(通整的) 국가관 또는 문화적 복리주의의 국가관이라는 부르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지 그 이상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분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합된 전체개인의 공동목적에 감당하는 일구성원으로서만이다. 둘째, 국가 자체라는 것이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성립, 존재하는 것이라면 작은 단체인 국가보다도 더 큰 정치단체인 국제적 정치단체(U.N.의 발전형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조영식 1951, 107-109). 이러한 국가관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오로지 있어야 할 국가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 의미는 일반 인민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민 전체를 위해 전체 인민의 의사로써 인민의 대표자들이 일반인민들의 공복이 되어 일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조영식 1948, 146).

그러나 조영식의 민주적 국가론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칸트의 공화주의는 결국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조영식은 이러한 종류의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로 불렀고 또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함께 노동하는 공영권만을 위주로 하는 민주주의를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모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조영식 1948, 137-139). 즉,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형식적 내용으로서 자유 평등이 필요하듯이 실질적 목적물로서 공영은 불

가결의 요건이며 또 동시에 공영이 있어야만 우리들의 자유와 평등은 있을 수 있고 그 충분한 가치도 발휘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조영식 1951, 126-7). 그리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 각각이 공영사상에 기초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민주주의를 ‘보편적 민주주의’라고 하였다(조영식 1948, 158). 조영식은 1948년 그의 민주주의 자유론에서 ‘보편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1989년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서는 주요 회의에서 제3민주혁명이라는 주장 하에 역설해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인 1990년 8월 12일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12차 휴머니즘 세계학술대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제1민주혁명인 프랑스 혁명을 시민계급의 자유혁명으로, 제2민주혁명인 러시아 혁명은 무산계급의 평등혁명으로 특징지었다. 이 두 혁명 모두 각각의 혁명주체, 즉 유산자와 무산자를 중심으로 한 자유와 평등에 편중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이제 제3민주혁명 통하여 ‘보편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보편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두 민주주의 체제가 가지는 결함을 보완하는 동시에 오늘날 시대적 요청인 인간화, 복지화, 국제화에 부응하는 새 민주주의가 되어야 하며 나아가 함께 공영을 바라보는 국제주의, 합리주의, 인도주의, 보편주의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였다(조영식 2003, 585-6). 그는 이러한 제3민주혁명은 인류 모두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 평등, 공영을 추구해야 하며 민주주의 종국적, 고차원적 통합혁명 또는 완성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3민주혁명은 그 이념과 제도의 구현에 있어서 한 국가 안에서만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여 만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대소국의 동등권 및 공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조영식 2003, 553). 이 공영의 정신은 반전평화(反戰平和)를 의미하며 복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침략의 중단과 평화의 유지를 통해 상호부조하여 공동복리를 달성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조영식 1951, 126). 이렇게 볼 때 조영식의 ‘보편적 민주주의’는 위에서 논의한 칸트의 공화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일정한 공통점을 보여주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이론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IV. 칸트의 평화연맹과 조영식의 지역·지구공동사회와 Pax UN

1. 칸트의 공화국들 간 평화연맹

칸트는 평화를 염두에 두고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논의한 후에 국제관계로 그의 이론적 시야를 돌린다. 즉, 전쟁이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가 시급히 답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이다. 중세 이래 교황과 신성로마제국의 최고 통치권 하에 있었던 유럽 기독교국가(Christendom)의 정치관습으로부터 1648년 웨스트팔리아강화조약 이후 등장한 왕조

중심의 근대국가질서로 전환하면서 전쟁은 국가 간 분쟁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근대국가질서는 위의 기독교국가가 제대로 질서와 평화유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안으로 등장하였었지만 칸트가 활동할 당시의 유럽 질서는 일종의 자연 상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많은 사회계약론자들이 자연 상태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사회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존재함을 주장하였지만 이러한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자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홉스를 비롯한 많은 사상가들은 당시 국제관계에 있어서 평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칸트는 바로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자연상태를 벗어나 영구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게 된다.

칸트는 이러한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성애 비추어 볼 때 전쟁만을 초래할 뿐인 무법적 자연상태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하는 국제국가(civitas gentium)를 형성한다. 그러나 여기서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상태는 국가들 내부에 이미 법적 형식을 갖춘 헌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반적 자연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기존의 개별적 국가와 사회들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국가와 개인들 사이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별적 국가와 사회들의 융통성 있는 연맹으로 전환한다. 셋째, 이러한 연맹으로부터 칸트가 말하는 사해동포주의적인 국가들의 국가(state of the states)로의 발전이다. 칸트는 이 세 번째 안은 이성이 요구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상태일 뿐이라고 하였다(Schossberger 2006, 167). 칸트의 이러한 견해들은 영구평화조약안의 확정조항 제2조와 제3조에 담겨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가들 사이에 성립되는 국가 내의 시민헌법과 같은 계약관계는 국민들 간의 연합일 뿐이라고 주장한다(Kant 1991, 102). 즉, 이러한 종류의 연합이 곧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국가(international state)의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 내에는 이미 최고 권력자 또는 입법자(superior or the legislator)와 그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inferior)의 이중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지만 이 국가연합은 단 한 부류, 즉 모두 평등한 구성원을 갖는 국가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직 칸트가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평등한 관계를 갖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상용 1997, 2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무력을 기초로 하는 당시 국가들 간의 군사정치에서 조차도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로티우스(Hugo Grotius) 등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것을 보면 아직 정의 내지 권리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이것이 인간들에게 현재는 잠들어 있을지 몰라도 장차 그 자신 안에 사악한 원칙을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도덕적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Kant 1991, 103). 칸트는 단지 군사적 승리에 의해 정의나 권리가 결정될 수는 없으며 강화조약도 당장의 전쟁은 종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제라도 새로운 전쟁을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 전쟁 상황 조건들 그 자체를 종결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다(Kant 1991, 104). 따라서 입법을 위한 최고의 도덕적 힘으로서 이성은 전쟁이 정의에 대한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당장의 의무로서 평화를 수립하도록 한다고 하였다(Kant 1991, 104). 하지만 평화는 국가들 사이에 일반적 동의를 도출되기

전에는 확보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연맹(league)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이를 평화연맹(pacific federation)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칸트는 이 평화연맹이 기존의 평화조약과는 다르다고 하였는데 후자가 단 하나의 전쟁을 종결시킬 뿐이라면 전자는 모든 전쟁을 영원히 종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Kant 1991, 104). 이 평화연맹은 기존의 국가들이 행사해오던 것과 같은 권력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구성 국가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체로 자유를 보존하고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맹주의(federalism)적 구상은 점차 확대되어 모든 국가들을 포함하고 궁극적으로 실제적이며 객관적인 현실로서 나타나 영구평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어떤 한 강력하고 개명된 국가가 근원적으로 평화적인 공화국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경우 이는 다른 국가들과 연맹적 유대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정의(international right)에 부합하는 그들의 자유를 확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연합이나 동맹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이 모두에게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던 것이다(Kant 1991, 104). 물론 칸트는 국가들도 개인들처럼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공공의 강행법을 준수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지구의 모든 국민들을 포함할 하나의 국제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당시의 국제정의라는 개념에서 볼 때 아직 국가들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공화국(world republic)이라는 적극적 구상은 시기상조라 하였고 그에 대한 소극적 대안으로서 지속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연맹(federation)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Kant 1991, 105).

국제적 수준에 있어서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논의 사항으로 칸트는 제3확정조항에서 보편적 환대(universal hospitality)라는 사해 동포권(cosmopolitan right)을 제시한다. 여기에서의 환대라는 개념은 박애주의의 의미보다는 정의 또는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Kant 1991, 105). 즉, '환대'에 관한 권리는 어떤 이방인이 타국의 영토에 당도했을 때 그 곳에서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권리의 근거는 인류 모두가 동근 지구의 표면에 대하여 갖는 공동의 소유권이 있어서 타인들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Kant 1991, 106). 하지만 이 환대에 대한 자연적 권리(natural right), 즉 이방인의 권리는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케 하는 조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붙였다.⁷⁾ 칸트는 이처럼 이방인들 간에 서로 환대하다보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공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평화로운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인류는 사해동포의 헌법(cosmopolitan constitution)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Kant 1991, 106).

20세기에 있어서 두 번의 대전을 치른 후 각각 등장한 국제연맹 규약이나 국제연합 헌장은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담고 있는데 바로 칸트가 말한 사해동포의 헌법과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은 칸트의 이러한 자유주의적 평화론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국제연맹을 창설하였었다. 다른 한편으로 후쿠야마(F. Fukuyama)

7)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유럽인들이 다른 지역에 도착하여 자행한 토착민의 무시, 무역거점 수립을 위한 군대의 동원 등에 대하여 비판하였다(Kant 1991, 106-7).

는 유엔 헌장이 칸트의 영구평화의 이상을 현실정치에 실현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칸트 구상의 중요한 요소인 자유국가들 사이의 연맹이라는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Fukuyama 1992, 282). 이러한 칸트의 사해동포주의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기(Thomas Pogge)는 사해동포주의에 기초하여 다층적 권위체(multi-layered authority)로 국제정치의 통치구조가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Pogge 1992, 58). 조영식은 세계평화를 새로운 범세계적 정치체제에 있어서 지역공동사회(Regional Common Society)와 세계 공동사회(Global Common Society) 그리고 팩스 유엔 등을 제안하였는데 그것도 칸트의 이러한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조영식의 지역 및 지구공동사회와 Pax UN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조영식은 인류공동체를 고찰함에 있어서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중심주의를 취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국가중심주의가 국수주의 등으로 흐를 때 야기하는 폐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일찍이 국가의 임무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데 있으므로 오늘날 국민국가들은 인류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단지 국가적 단위들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조영식 1951, 109). 뿐만 아니라, 그가 국가 안의 민주주의 또는 그가 말하는 보편적 민주주의를 역설했던 것처럼 인류사회는 국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라는 것도 근본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사회와 그 내부적 민주주의의 확대된 형태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조영식 1951, 274-275). 그는 유럽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중세 봉건체제로부터 근대 국가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 내 전체적 군주체제에서 자유적 민주체제로의 혁명적 변화가 있었음에 주목한다(조영식 1996, 108). 같은 맥락에서 그는 국가공동체들이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 성립된 것처럼 오늘날 새로운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더 큰 규모의 정치공동체가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영식 1951, 108). 그는 이미 1950년대 초 문화세계, 세계국가, 또는 세계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전지구적 수준에 있어서 정치공동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구상에 따르면 문화세계 또는 문화세계 공화국이라는 기치 아래 이 조직은 국제민주주의에 기초하는 행정구조를 가지고서 국경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조영식 1951, 344, 338-9, 352). 이러한 그의 견해는 이후 약간의 용어 변화를 보여주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그는 이제 지역협동사회(Regional Cooperation Society)와 지역공동사회(Regional Cooperation Society) 그리고 지구협동사회(Global Cooperation Society)와 지구공동사회(Global Common Societ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그 실현을 주창해왔다. 그는 이러한 초국가적 사회들이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에 기초하는 보편적 민주주의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오늘날 인류는 점차 상호 의존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집단적 공동운명 하에 놓여있는 인간 가족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Choue 1981, 196).

조영식은 지구공동사회라는 그의 비전속에 그 전 단계 또는 중간 단계로서 지역협동사회(Regional Cooperation Society) 또는 지역공동사회(Regional Common Society)라는 구상을 가지는 데 그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 21세기 초반부터 배타적 국가주의 시대가 아닌 국가를 토대로 한 지역주의, 국제주의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유럽의 EC가 왜 통일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와 같은 사회를 GCS의 전 단계인 RCS(Regional Cooperation Society), 즉 지역협력사회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국가 단위가 아닌 RCS(Regional Confederate States), 즉 지역국가 사회가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성향을 띤 지역협력체들의 예가 EC와 NAFTA, APEC, ASEAN, OAU, Arab Community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는 Global Cooperation Society, 즉 지구협동사회에서 Global Common Society - 지구공동사회, 또는 Global Confederate States - 하나의 세계국가연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앞날의 큰 목표의 구현을 바라보며 ... 밝은사회운동을 펴고 있습니다(조영식 2003, 663).

사실, 오늘날 유럽공동체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그 초기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장 모네(Jean Monnet)는 기존의 국가주권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능적 접근을 함으로써 먼저 석탄과 철강 분야에 초점을 두어 지역협력을 추구했었다(Dinan 1999, 11-28).

조영식이 이처럼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다층적인 공동체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전망함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주권 개념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이며 그 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권위”(Hinsley 1986, 26)로 정의되는데 조영식이 인간중심주의에서 출발하여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지역공동사회, 지구공동사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 주권개념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이러한 문제를 주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조영식은 일찍이 1948년의 『민주주의 자유론-자유정체의 탐구』에서 주권의 개념을 논의하면서 주권을 ‘전체적 주권’과 ‘민주적 주권’으로 분류하며 후자를 옹호하였다(조영식 1948, 143-145). 그는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은 그 자체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국민을 대표하여 그들의 주권을 발동시키기 위하여 집행권을 행사할 뿐이라고 하였다(조영식 1948, 145). 이러한 그의 견해는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John Locke)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일찍이 로크는 궁극적으로 최고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으며 통치자는 다만 이들에 의해 신탁된 파생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었다(Locke 1960, 385). 조영식의 논의에서는 심지어 개인의 주권 개념까지도 읽어들일 수 있는데 조영식의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생명이 그 자체로서 가장 중요한 존재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주권의 의미와 개인의 근본적 자연권은 어떤 면에서 그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상식이 조영식의 주권론은 실체에 있어서 개인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은(Park 2004, 80)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주권의 본원이 개인이 되면 그 집합체로서 국민의 주권이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로부터 다양한 수준의 필요에 따라 파생적 주권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의미의 주권에 대한 논의는 칸트도 시도했었다. 즉,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로서 칸트는

국민들에게 속하는 본래적 주권과 통치자들에게 부여되는 파생적 주권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다(Kant 1991, 24-25).

조영식은 오늘날 지구공동사회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을 중시하여 모든 국가와 민족의 보편적 주권에 기초하는 '유엔을 통한 평화론(Pax UN)'도 제시한다(Choue 2001, 232). 이러한 팩스 유엔론에 있어서 유엔은 국가 대표들에 의한 편협한 국가 이익의 경쟁장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라는 전 인류 공동이익의 문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파술로(Linda Fasulo)는 유엔이 오늘날 변화해가는 세계에 있어서 그 적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표들보다는 국민들에 대해 더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Fasulo 2004, xiv). 물론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아직 유엔이 독자적 행위자인가 아니면 국가들의 정책도구로서 제도적 틀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Weiss, Forcythe, and Coate 2001, 12-15). 조영식의 세계사회에 대한 비전은 확실히 칸트가 그의 영구 평화론에서 논의했던 평화연맹과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보여주면서도 오늘날 시대적 변화를 염두에 둔 보다 구체화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오늘날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구의 다층적 거버넌스론과 이론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이 논문은 조영식이 세계평화를 위해 사색하고 저술하며 또 실천운동을 전개해온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그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이론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시도의 객관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 이미 평화사상가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마뉴엘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이론적 기초와 병렬적으로 비교 접근해보았다. 세계평화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특히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흔히 행해지는 세 수준의 분석, 즉 개인, 국가,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칸트와 조영식이 유지하고 있는 이론적 요소들을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개인 수준에서 칸트는 아직 전제주의 체제가 지배적이던 18세기 말에 개인들 간의 자유와 평등, 국가 수준에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주의 헌법, 대의민주체제를 가지는 정치체제,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는 이러한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지는 국가들 간의 연맹과 이방인에 대한 환대개념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영식은 칸트를 비롯한 많은 계몽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까닭으로 그의 평화사상 전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칸트 같은 사상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고 중요한 이론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즉, 개인 수준에서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도 여기에 공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즉, 공영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의 추구를 역설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행정기관이요 통치기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제1민주 혁명에 기초한 자유 위주의 정치적 민주주의(프랑스 시민혁명), 제2민주 혁명에 기초한 평등 위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러시아 볼셰비키 혁명)도 결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평화적인 제3민주혁명에 의한 보편적 민주주의를 통해 인류 만민의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범지구적 의제로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엔과 오늘날 국가들은 이제 국가 간의 전쟁 방지에만 초점을 두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게 볼 때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는 어떤 면에서 조영식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수준에서 조영식은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지역협동사회, 지역공동사회 그리고 지구협력사회와 지구공동사회의 도래가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및 지구의 연합적 국가체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 조영식은 새로운 시대적 진전 상황 속에서 칸트보다 좀 더 구체적인 세계질서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구공동사회를 위해 유엔을 통한 세계평화를 강조한 것은 그의 평화에 대한 접근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칸트가 그의 영구평화 조약 초안의 추가 조항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철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강조한 것처럼 조영식은 일찍이 인류 지성의 대표자들과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다수 대학 총장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세계평화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추구해왔다. 그 대표적인 한 사례가 1981년 12월 유엔 총회를 통하여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게 한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실로 조영식이 그의 청년시절의 독서와 사색 그리고 저술을 통하여 공고히 다졌던 평화이념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실천에 옮기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사실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하영애 2010, 44-45). 따라서 그 동안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조영식이 제시한 이론적이고 실천적 노력들은 향후 인류 사회를 위해 더욱 연구되고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용구(1989). 『춤추는 회의 : 비엔나회의 외교』. 서울 : 나남출판.
- 밝은사회운동 30년사 편찬위원회(2007). 『밝은사회운동 30년사』. 서울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밝은사회연구소.
- 유석성(1996). “칸트의 영구평화론.” 『서울신학대학교수논총』. Vol. 7, pp. 125-144.
- 인간 조영식 박사 101인집 출간위원회(1994). 『조영식 박사, 그는 누구인가 - 인간 조영식 박사 101집』. 서울 : 인간 조영식 박사 101집 출간위원회.
- 조영식(1948). 『민주주의 자유론』. 서울 : 한일공인사.

- 조영식(1951). 『문화세계의 창조』. 대구 : 문성당.
- 조영식(1975). 『인류사회의 재건』. 서울 : 을유문화사.
- 조영식(1979). 『오토피아』. 서울 : 을유문화사.
- 조영식(1991). 『세계평화백서 - 조영식 평화학』.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 조영식(2003). “21세기 민주주의와 팩스 UN을 통한 신 국제질서.” 조영식.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 있는 사회』. 제2권.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 조영식(2003).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 있는 사회』. 서울 : 경희대학교 출판국.
- 최상용(1997). 『평화의 정치사상』. 서울 : 나남출판.
- 하영애(2010). “오토피아(Oughtopia) 이론의 내용과 전개 : 중국과 대만 사회의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5권, 제1호 (한국동북아학회), pp. 27-51.
- 허재일· 소치형(1999). 『서양정치사』.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Archibugi, Daniele(1995). "Immanuel Kant, Cosmopolitan Law and Peac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 No. 4 (December), pp. 429-456.
- Beiser, Frederick C.(1996). *The Sovereignty of Reas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naldez, Pedro B.(2002). *Oughtopian Peace Model for Neo-Renaissance - Young Seek Choue's Peace Thoughts and Strategies*. Legazpi : Aquinas University Press.
- Choue, Young Seek(2001). *Toward the Global Common Society* (3 Vols.). Seoul : Kyung Hee University Press.
- Dinan, Desmond(1999). *Ever Closer Union : An Introduction to the European Integration*, second edition. London : Lynne Rienner Publishers.
- Doyle, Michael W.(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12, No. 1 (Winter), pp. 205-235.
- Franceschet, Antonio(1998). "Sovereignty and the Politics of Freedom : Immanuel Kant's Liberal Internationalist 'Legacy'."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Minneapolis. USA (March 17-21).
- Fukuyama, Francis(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Harmondsworth : Penguin.
- Hinsley, H. F.(1986). *Sovereign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rrell, Andrew(1990). "Kant and the Kantian Paradigm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6., pp. 183-205.
- Kant, Immanuel(1983).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translated by Ted Humphrey. Cambridge : Hackett Publishing Company.
- Kant, Immanuel(1991). *Kant : Political Writings*. by Hans Reiss. Cambridge :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gley Jr., Charles W.(2009). *World Politics :Trend and Transformation*. Belmont, C A : Cengage Learning.
- Locke, John(1960).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eter Laslette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James(1984). *Rousseau :Dreamer of Democracy*.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Park, Sang-Seek(2004). "Universal Democracy." *OUGHTOPIA*. Vol. 19, No. 3 (Winter), pp. 71-101.
- Pogge, Thomas W.(1992). "Cosmopolitanism and Sovereignty." *Ethics*. Vol. 103 (October).
- Reilly, David(1997). "What's Democratic About Peace? An Exploration of Democratic Theory and the Mechanism of Peaceful International Behavior." a paper prepared for the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IL (April 10-12).
- Russett, Bruce M.(1993).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ossberger, Cynthia(2006). "Raising a Question :Coercion and Tolerance in Kant." *Folianopolis*. Vol. 5, No. 2 (December), pp. 165-171.
- Tariq, Malik Muhammad and Shagufta Begum(2008). "The Metaphysical Foundations of Kant's View of Human Freedom." *Al-Hikmat*. Vol. 28, pp. 1-12.
- The Publication Committee of Global Leader With Great Vision(1997). *Global Leader With Great Vision*. Seoul : The Publication Committee of Global Leader With Great Vision.
- Waltz, Kenneth W.(1959).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Weiss, Thomas G., David P. Forcythe, and Roger A. Coate(2001).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Boulder : Westview Press.
- Williams, Howard(1983). *Kant's Political Theory*. Oxford : Basil Blackwell.

Abstract

Kant's Perpetual Peace and Young Seek Choue's Oughtopian Peace Theory : A Three-Level Analysis

Young Dahl Oh* · Young Ae Ha**

This article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ant's treatise on "Perpetual Peace" and Young Seek Choue's Oughtopian Peace Theory.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three leve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e., individual, state, and international. Kant pays keen attention to the maintenance of adequate free and equal relations among individual persons as the starting point for perpetual peace. In the level of state, Kant emphasizes the existence of republican constitution and representative system in which people's freedom, equality and independence are guaranteed because people would not agree to the illegitimate and burdensome war.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acific federation of republican states are the key stone for perpetual peace. In addition, the cosmopolitan right to hospitality should be recognized for foreigners. s Young Seek Choue was influenced by the Enlightenment thinkers, he shows some common characteristics with them including Kant. Nevertheless, he demonstrates his own unique theoretical viewpoint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Kant's. In the individual level, Chou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ree and equal relations and co-prosperity based on his human-centrism. In the state level, Choue advocates a universal democracy as a synthesis of what he calls freedom-centric political democracy and equality-centric economic democracy. Again,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prosperity of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on the basis of the universal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level, Choue argues that humankind are moving toward regional cooperation society and regional common society and global cooperation society and global common society beyond the existing nation-states. In this context, he contends that the UN should be strengthened and play a central role in maintaining world peace and prosperity beyond narrow national interest. Choue's life-long meditation on and efforts for world peace cannot be overestimated. It is expected that the theoretical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y Sciences, Hanya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elements of his vision for world peace will be a crucial guideline for the contemporary and upcoming humankind.

■ 논문접수일 : 2010년 7월 2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15일